전남도, 캐나다 '2대학1의대' 벤치마킹…국립의대 유치 총력

노던 온타리오 의대, 동서 간 1천㎞ 떨어진 2곳에 캠퍼스 운영
현지서 교류의향서 체결…목포·순천 공동 상생방안 마련 도움

전남도가 두 대학이 하나의 단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를 찾아 지역 국립 의과대학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방안 모색에 공을 쏟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현지 시각)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NOSM대학) 선더베이 캠퍼스를 방문,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역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진행키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더베이 캠퍼스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유치추진단장과 함께 NOSM대 사리타버르마 총장, 윌리엄 맥크레디 부학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부합한 전남형 의과대학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NOSM대 방문은 김 지사를 비롯, 참가자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료현실이 전남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당 대학이 일군 지역 의료 혁신에 주목하면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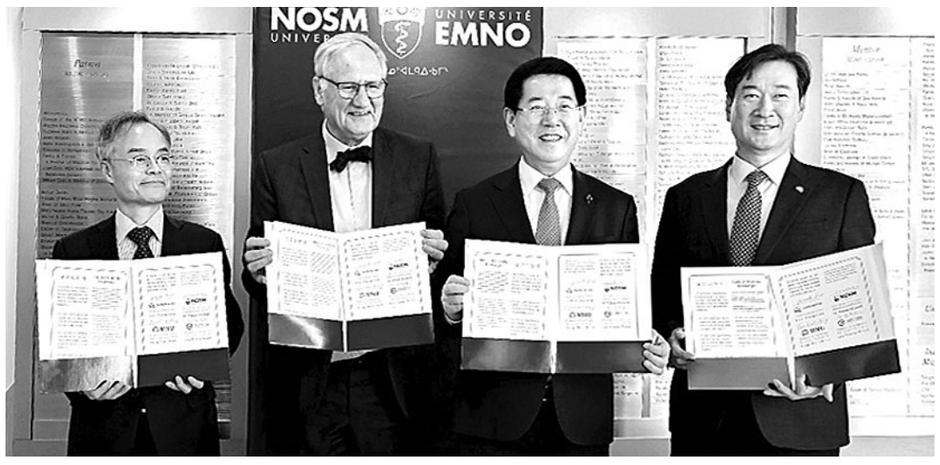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서 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단일의대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공급하고 있는 NOSA대 성공 사례가 의대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 갈등·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목포·순천 간 공동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는 오지가 많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지만 1000㎞ 이상 떨어진 온타리오주 내 서부 레이크헤드대와 동부 로렌시안대가 2002년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2002년), 800명 이상의 의사를 배출해 지역 공공의료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해외 통합 의대설립의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대학이 학생 선발부터 교육, 실습, 배치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의료문제를 체험토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졸업생의 80%가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노던 온타리오 의대는 대학·지역 커뮤니티·지역민이 공동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극복한 모범사례"라며 "전남도가 성공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지역에 국립 의대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국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NOSM) 선더베이 캠퍼스를 방문,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 노하우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관광 토지계약금 86억 납부…2025년 첫삽

협약 성실 이행…90일 내 현지법인 설립·설계용역 착수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6억원을 납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앞서 지난 8일 개발사업 협약 이행보증으로 1단계 116억원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제출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전까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635억원) 단계별 납부, 2024년 내에 토지비 860억원 중 계약금 10%를 포함 240억원을 우선 납부,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광주에 현지법인 설립, 설계용역 계약 등을 약속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에 따라 협약이행보증증권과 토지매매계약금을 납부했으며, 90일 내로 현지법인 설립과 설계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기본계획(MP) 수립 및 실시설계,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사전 준비 후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와 2단계(스타필드와 콘도)는 2030년, 3단계(레지던스와 부대시설)는 203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 3종세트' 가운데 어등산관광단지가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어등산관광단지는 호남권을 아우르는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스테이케이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이 어우러진 서남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서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토지 1.8㎢ 늘었다…축구장 252개 크기

영산강 매립 등…전체 1만2362㎢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라 지난해 전남의 면적이 축구장 252개 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16일 "2023년 말 현재 전남 면적은 1만2362㎢로 전년보다 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2404원/㎡)로 환산하면 전남도의 재산이 223억원 늘어난 셈이다.

전남 면적이 늘어난 것은 해남군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신규 등록 1.3㎢, 목포시 예부선부두 매립준공 신규 등록 0.05㎢,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신규 등록 0.01㎢, 신안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0.02㎢ 등 때문이다.

시·군별 면적은 해남(1045㎢)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44만4000필지), 고흥(40만9000필지), 나주(39만2000필지)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934㎢(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167㎢(25.6%), 도로 464㎢(3.7%), 대지 319㎢(2.6%), 유지 등 기타 1478㎢(12%)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전남도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전남도, 180억 들여 2028년 완공 목표…융복합 공간 구축

전남도가 해남군에 180억원을 들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한다. 이 단지는 구례군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산·가공·유통·교육·체험·관광 등 친환경 농업 융복합 공간이다.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새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올해 해남군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1차년도 기본계획 수립비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참여, 지난해까지 2년간 현장·발표심사 등 계속되는 사업성 평가·검증과 함께 전문가 자문으로 예비계획서를 보완하는 등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열정적 사업 추진 의지로 보여 선정됐다.

사업비 180억원 가운데 국비는 90억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남 산이면 일원에 기반 시설을 포함해 유기 친환경 전문판매장, 자연치유 레스토랑·카페, 종합커뮤니티센터, 가정간편식(HMR)·밀키트 등 가공·판매시설과 유기 친환경 메타버스 전용관, 어린이 자연치유 놀이터·유기식품공방, 체험농장 등 교육·홍보·체험시설, 유기농 치유 및 생태공원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지역 중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4645ha)을 보유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 대흥사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도 과수연구소,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청년 농업인 임대농장 등 집적화된 농업 기반 시설을 갖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유기농산업을 선도할 친환경농업의 융복합산업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내 외국인 251만명…전체 4.9%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감소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4656명)보다 1만70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하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영암군(14.2%)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허용…안전성 우려 지적도

정부가 '소규모'란 단서를 달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거래·허용하는 등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와 개인 간 선물이 일상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판단, 소규모 판매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 우려가 존재해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안 마련 내용과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구체적 허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며,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해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비중이 약 68%에 이르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물 받았거나 구매한 제품이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으면 소비기한이 넉넉한 제품이라도 다시 팔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권고가 소비자의 편리함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삼월(600625-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신등갈길 92-5
피상속인 망 박삼월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1261호로 신청하여 2024년 1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7일

• 상속인 : 남지연(891025-2XXXXXX)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9, 402동 1802호(여진동, 한뜰마을4단지)
• 신고기간 : 2024. 1. 17. ~ 2024. 3. 2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남지연의 주소

산행안내

1월20일(토)

▲광주호산회 1월 20일(토)〈제665차 정기산행 강원도 선자령 트레킹〉04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4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4시 50분 백운우체국 05시 롯데백화점 05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신 안 222-8171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양 산 571-7658 • 우 산 433-1503 • 북광주 525-3761 • 오 치 266-7601
동 구	• 남 광 673-6836 • 중 앙 222-9054	• 동 명 222-9054 • 충 장 222-8171 • 동 부 225-6001
남 구	• 남 부 673-6836 • 송 하 675-6605	• 백 운 651-1833 • 진 월 671-7276 • 봉 선 673-6836
서 구	• 광 천 382-5788 • 운 천 376-7153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치 평 376-6511 • 서광주 369-1625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하 남 955-0451	• 월 곡 959-1920 • 광 산 944-0444 • 첨 단 973-2900